동양시멘트, 골든오일과 합병 증시 입성… 자원개발 진출 (2010. 4. 1)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시멘트와 코스닥 자원개발업체 골든오일을 합병시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동양그룹은 1일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골든오일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골든오일도 동양시멘트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동양그룹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2008년 5월 골든오일의 전환사채(CB) 1,400억원어치를 인수하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동양시멘트는 시멘트 제조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동남아 등지에서 유연탄 광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병을 통해 유전, 유연탄, 희소광물 등을 개발하는 자원개발업체로 변신할 전망이다. 골든오일은 코스닥에서 가장 성공한 자원개발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원유 생산에 성공한 콜롬비아 모리치토 광구를 비롯해 현재 캐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등 북남미 4개국에 걸쳐 총 28개 광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15개 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운영권을 보유한 광구는 16개다. 동양그룹은 골든오일이 북남미에 보유하고 있는 유전개발 전문인력과 기술력, 정보력, 광구 운영능력, 현지 정부와의 친화력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북남미 유전광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희소광물자원 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양시멘트와 골든오일의 합병은 동양시멘트 1주당 골든오일 11.7149230주의 비율로 이뤄지며 다음달 11일 골든오일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中, 노후 시멘트설비 폐쇄… 3억t 규모 (2010. 4. 2)

중국이 3년 안에 3억t 규모의 노후 시멘트설비를 폐쇄할 전망이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최근 '2010년 중국 국제시멘트 회의'에서 입수한 정부의 '시멘트산업정책'에 따르면 1일 생산량 2천t 이하인 신형 건식시멘트 생산라인의 건설이 제한되고 앞으로 3년 안에 3억t 규모의 노후설비가 폐쇄될 예정이라고 2일 보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멘트 산업 발전 정책'은 2006년 제정된 것이며 새로운 시멘트산업정책은 향후 1년간 준비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멘트산업정책은 종전과 달리 시멘트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신형 건조식 시멘트 생산의 규모를 통제하고 과잉생산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대형 신규 건식시멘트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규 시멘트 공장을 건설할 때 기업의 자체 자금조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집중도와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상위 10위 기업의 시멘트 생산이 전국 총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업계 전문가는 2015년 중국 시멘트 소비량이 18억 5천만t을 기록한 후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시멘트, 슬래그시멘트사업 본격 진출 (2010. 4. 2)

현대시멘트는 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연간 120만t 생산규모의 슬래그시멘트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공장인근에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조달할 수 있는 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고, 전용부두도 건설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시멘트의 전용부두인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 선석'은 면적 6만m^2에 접안능력 3만t급 하부시설, 시멘트 생산, 저장시설, 하역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공장과 전용부두는 오는 2011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슬래그시멘트는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시멘트와 슬래그를 혼합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단순하다. 특히, 일반시멘트와 품질은 같으면서 생산원

가는 저렴해 시멘트업체마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핵심원료인 슬래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철공장이 인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진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시멘트는 현재 슬래그 시멘트 수도권 점유율이 2%선에 머물고 있지만 평택공장이 완공되는 2012년 이후 시장지배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관계자는 "공장이 완공되면 시멘트 주 소비처인 수도권, 충청권에 대한 판매확대와 운송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슬래그의 안정적 원료 확보로 시멘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 시멘트사일로 재활용… 9개국 180팀 공모 (2010. 4. 12)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시멘트사일로 재활용 국제현상공모 결과 "미·일·이탈리아·프랑스 등 9개국 180개팀이 참가등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사일로 재활용 사업은 박람회장내에 있는 높이 55미터, 용량 약 1만톤급의 기존 유휴 시멘트사일로 2기를 재활용해 상징성, 예술성, 독창성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예술적 작품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현상공모는 18~19일 작품을 접수해 5월 25~26일 1단계 심사를 거쳐 5~6개 팀을 선정한다. 이어 1단계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2단계로 지명경쟁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순동 회장연출과장은 "산업화시대 임무를 다하고 유휴 시설물로 전락한 시멘트사일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환경친화적 녹색성장의 상징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인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전남 여수 신항 일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다.

러시아, "에너지·시멘트 공장 사업에 한국 자본 21억달러 유치 희망" (2010. 4. 15)

"한국에서 최대 21억달러(약 2조 3,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희망한다" 알렉산드르 호로샤빈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의 말이다. 사할린 주정부는 14일 대규모 사업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찾았다. 복합 에너지단지, 시멘트 공장, 주택 건설 등 총 48억달러 규모다. 이 중 거의 절반을 한국 자본으로 채우고 싶다는 얘기다. 호로샤빈 주지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와 투자 설명회에서 "사할린은 지하자원과 수산물의 보고"라며 "한국 기업이 관심 가질 만한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사할린주의 교역액은 약 30억달러다. 사할린주 전체 교역의 35%에 해당한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사할린주의 둘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사할린에서 잡힌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사할린 주정부가 한국 기업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출동한 이유다.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주 총생산이 113억달러로 전년 대비 7.4% 성장했다. 이번에 들고 온 프로젝트는 ▶사할린섬 서해안의 솔른첩스키 탄전 개발과 발전소·철도 건설 ▶스미르니흡스키 시멘트 공장 건설 등이다.

日, 시멘트수요 42년전으로 뒷걸음질 (2010. 4. 28)

일본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2009년 4월~2010년 3월) 시멘트 수급실적에 따르면 생산량은 5,836만t, 판매량 5,303만t으로 전년도보다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량은 4,197만t으로 전년도에 비해 14.6% 감소했다. 특히 국내 판매량이 4,200만t으로 하락한 것은 1967년도 이후 42년만의 일이다. 시멘트의 국내 판매량이 전

년 실적을 밑돈 것도 지난 2006년 이후 4년 연속이다. 2009년도의 감소폭이 전년도 대비 14.6%나 감소한 것은 지난 195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감소폭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구별 판매량을 보면 전국 11개 지구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돌았다. 특히 도카이와 긴키 등 2개 지구는 20%대의 대폭적인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수출은 ASEAN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도 대비 3.6% 증가한 1,105만t으로 지난 2007년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0만t을 웃돌았다. 수출량은 싱가포르가 242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의 101만t, 중국 92만t, 한국 79만t, 홍콩 67만t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멘트협회는 2010년도(2010년 4월~2011년 3월) 국내 수요(국내판매+수입)는 4,000만t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황에 따른 민간투자 침체와 공공사업 예산 삭감이 겹쳐 상반기에는 전년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각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능력 감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건설투자가 회복해 시멘트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될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올해는 시멘트산업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 2010년도는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산업체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크리트 환경 선언」 발표 (2010. 5. 6)

한국콘크리트학회를 비롯한 콘크리트 산업 관련 7개 단체가 2010년 5월 6일(목) 오후 대전광역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콘크리트 환경선언을 발표하고 각 단체장들이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콘크리트 환경선언은 다양한 분야의 콘크리트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기후변화를 비롯한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콘크리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 선언은 미래 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발전이 가능한 범위에서 콘크리트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다짐하는 등 콘크리트 산업 기술자들이 스스로 환경부하를 줄이고 환경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멘트업체, 호주산 유연탄 사용 늘린다 (2010. 5. 10)

시멘트업체들이 호주산 유연탄 사용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중국, 호주, 러시아산 유연탄 가운데 호주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산 유연탄은 중국 정부의 수출규제로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다 가격이 출렁이기 일쑤고 러시아산은 겨울철 공급이 원활치 않아 자연스럽게 호주산 유연탄으로 구매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격과 조달이 불안정한 중국산 유연탄보다는 호주산 유연탄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일, 현대, 아세아시멘트 등에서 두드러진다. 한일시멘트의 경우 올들어 호주산 유연탄 사용량 비중을 80~90%로 급격히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산 유연탄 사용비중이 80%를 웃돌았으며 호주산을 이처럼 크게 늘린 것은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호주산 유연탄은 중국, 러시아산보다 수급이 원활하다"며 "운임료를 포함한다 해도 구매대행업체의 가격협상력이 뛰어나 수입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시멘트의 지난해 호주산 유연탄 사용비중은 50%에 이른다. 올 들어 아직까지 호주산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의 호주산 유연탄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쌍용양회, 성신양회 등은 각각 중국산, 러시아산 수입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 또한 수입가격이 재차 뜀박질하면 호주산 수입을 검

토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쌍용양회의 경우 연간 유연탄 사용량이 150만t에 달해 수입가격 1달러에 구매비용은 17억원(150만t×1,100원)가량 차이가 난다. 비용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에 단 1달러라도 낮게 수입하기 위해 구매처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멘트업체들은 종합상사를 통해 유연탄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가격은 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를 대행하는 종합상사의 구매파워에 따라 원산지와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복수의 구매대행업체를 두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 조금이라도 낮은 선에서 수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日, 태평양시멘트 베트남 최대 시멘트사 부상 (2010. 5. 10)

태평양시멘트와 미츠비시머티리얼은 베트남시멘트공사(VICEM)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인 기손시멘트코퍼레이션의 공장에 생산라인 증설을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증설한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220만t으로 기손사의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은 435만t에 달하며 일약 베트남 최대 규모의 시멘트회사로 부상했다. 베트남의 시멘트 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올해 베트남의 시멘트 내수는 5,000만t으로 일본 내수 규모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태평양시멘트는 기손사의 생산·공급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베트남 내수시장의 10%를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손사의 자본비율은 태평양시멘트 45.5%, VICEM 35%, 미츠비시머티리얼 19.5%이며 회사 운영은 태평양시멘트가 주도하고 공장은 하노이시 남쪽 약 200km에 위치한 틴자현 연안부에 있다. 지난 1995년 합작계약을 체결해 2000년부터 시멘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태평양시멘트는 내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05년 제2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7년 4월 공사에 착수했다. 소성킬른, 프리히터 등을 신설하고 기존 원료저장시설 등을 개량해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2배 가까이 강화했다. 생산능력 확충에 따라 공급체제도 정비하고 있다. 공장으로부터 시멘트를 받아들이는 호치민의 터미널에는 3만t의 사일로를 증설중이며,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치민시의 경우 초고층 빌딩이나 대규모 공장 등 대형시설의 건설이 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레미콘공장도 증가일로에 있다. 베트남에서는 포장시멘트의 비율이 약 80%로 높지만 호치민시에서는 레미콘 공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벌크시멘트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시멘트는 창업때의 방침대로 벌크시멘트 공급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中, 남아공에 시멘트공장 설립 지원 (2010. 5. 13)

중국이 대(對) 아프리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최소 2억달러 규모의 시멘트 공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남아공에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서 최대 수준이다. 중국은 2006년에 설립한 중·아프리카개발펀드(CADF)와 지둥개발그룹을 통해 남아공 기업인 콘티넨털시멘트 등과 합작 형태로 요하네스버그 외곽에 신규 시멘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시멘트 공장 건설로 남아공내 시멘트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월드컵을 대비해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멘트 물량이 달리는 상황이었다. FT는 이번 시멘트 공장 건립 계획안을 8월로 예정돼 있는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사전 작업으로 분석했다.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중국을 외교정책 최우선국으로 삼으며 중국과의 정치·경제 협력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중국은 남아공에서 철광석을 대량 수입함으로써 남아공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